

독서

국어 영역

1월호

교재의 사용법

이 교재는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로 학습한 학생들의 추가적인 학습을 돕기 위한 교재입니다. 각 파트별로 자세한 설명을 실어두지 않고 문제와 해설만 제공하기에,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로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이라면 해설 내용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한 학생들이라면 공부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 교재는 총 네 달에 걸쳐 업로드됩니다. 자세한 일정 및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달 말일 업로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1월호 :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1권에 대한 워크북 (1)
 - 2월호 :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1권에 대한 워크북 (2)
 - 3월호 :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2권에 대한 워크북 (1)
 - 4월호 :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2권에 대한 워크북 (2)
- 6월 모의평가 이후 : 1월호+2월호(=P.I.R.A.M 국어 생각 워크북 1권) / 3월호+4월호(=P.I.R.A.M 국어 생각 워크북 2권) **합본으로만 판매**

이 교재는 기본적으로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의 목차를 그대로 따릅니다. (교재 내 ‘생각의 시작’ 파트는 이 교재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1월호와 2월호는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1권의 목차에 맞는 지문들을, 3월호와 4월호는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2권의 목차에 맞는 지문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교재는 매달 독서 18지문 / 문학 23지문이 수록됩니다. 위 표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6월 모의평가 전에는 1월호~4월호를 따로 판매하고, 6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P.I.R.A.M 국어 생각 워크북 1권”과 “P.I.R.A.M 국어 생각 워크북 2권”의 이름으로 합본으로만 판매합니다. 합본의 정가는 1권/2권 각각 12,900원이지만, **합본이 되기 전 구매하시는 분들은 매월호를 4,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2,900원→9,800원 : 합본 기준 약 25% 할인)

이 교재는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를 완전히 끝내신 후 복습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로 공부하면서 한 파트가 끝날 때마다 확실하게 체화하기 위해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에 실린 지문들보다는 대체로 쉬운 편에 속하는 지문들이기에, 말 그대로 ‘복습 및 적용’의 느낌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교재까지 공부하시면 ‘8개년(2017~2024) 전 지문을 포함한 17개년(2008~2024) 주요 지문’을 학습하게 됩니다. 욕심이 난다면 17개년 전 지문, 나아가 20개년 이상의 전 지문까지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까지 완벽하게 공부하시면, 나머지 지문들은 스스로 해설을 만들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부법은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실어드릴 테니, ‘생각의 힘’을 키운다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채점 전

1. 교재에 제시된 각 파트별 설명을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고 정리한다.
2. 그 내용을 상기하며 뒤에 있는 문제들을 ‘시간을 재고’ 푼다.
3. 채점을 하기 전에 ‘시간 제한 없이’ 모든 문장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4. 문제를 다시 분석적으로 푼다. 이때 모든 선지에 대해 이 선지가 왜 맞는 지, 틀린지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채점 후

5. 해설지를 통해 자신의 사고과정과 해설지의 설명을 비교한다.
6. 해설지를 덮은 뒤, 해설지의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섞어 본인 스스로 모든 풀이 과정을 설명해본다.
7. 이번 공부에서 배운 점을 정리한다.
8. 다음 지문을 학습할 때 그 내용들을 의식하며 공부한다.

피렘의 국어공작소 카페

<https://cafe.naver.com/piramgukeo>



피렘 스페셜 페이지

<https://special.orbi.kr/piram2025/>



피렘 국어 구매처 (대부분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

<https://atom.ac/>



For 2025 피렘 국어 안내

<https://orbi.kr/00065274355>



생각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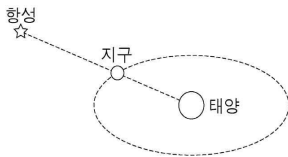
정보량이 많은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1) :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으로 모인다.

[32~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11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율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율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율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

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율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3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③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④ 율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33. 윗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30일과 29일이 든 달을 번갈아 써서, 평년은 한 해가 열두 달로 354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 주기와 많이 다르므로, 윤달을 추가하여 열세 달이 한 해가 되는 윤년을 대략 19년에 일곱 번씩 두게 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법을 만들고 대략 15일 간격의 24절기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 놓음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역법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한다.

- ①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② 동서양 모두 역법을 만들기 위해 천체의 운동을 고려했군.
③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군.
④ 그레고리력의 1년은 태음태양력의 열두 달과 일치하지 않는군.
⑤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율리우스력의 윤년보다 길겠군.

34. ㉠과 ㉡을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 서기 1700년은 모두 윤년이다.
② ㉠은 ㉡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③ ㉠을 쓰면 ㉡을 쓸 때보다 윤년이 더 자주 돌아온다.
④ ㉡은 ㉠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⑤ ㉡은 ㉠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지만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35. [A]를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활용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시에 있는 원형 전망대 식당은 그 식당의 중심을 축으로 조금씩 회전한다. ㉠ 철수는 창밖의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식탁에서 일어나 전망대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창가를 따라 걸었다. 철수가 한 바퀴를 돌아 그 식탁으로 돌아오는 데 ㉡ 57초가 걸렸는데,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 60초가 걸렸다.

- | | ㉠ | ㉡ | ㉢ |
|---|----|-----|-----|
| ① | 항성 | 항성년 | 회귀년 |
| ② | 항성 | 회귀년 | 항성년 |
| ③ | 지구 | 회귀년 | 회귀년 |
| ④ | 지구 | 항성년 | 회귀년 |
| ⑤ | 지구 | 회귀년 | 항성년 |

36. ㉠의 ‘으로’와 쓰임이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안경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볍다.
- ② 그 문제는 가능하면 토론으로 해결하자.
- ③ 그가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 ④ 사장은 간부들을 현장으로 불렀다.
- ⑤ 지난겨울에는 독감으로 고생했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11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고』는 ‘빈화파’의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이 이론을 세우는 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 모형을 통해 ㉡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7.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어의 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 ② ‘그림 이론’으로 논리실증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 ③ ‘사태’와 ‘사실’의 개념을 구별하였다.
- ④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이라고 보았다.
- ⑤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룬 기존 철학을 비판하였다.

18. 윗글의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곰팡이는 생물의 일종이다.
- ② 물은 1기압에서 90℃에 끓는다.
- ③ 피카소는 1881년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 ④ 우리 반 학생의 절반 이상이 헌혈을 했다.
- ⑤ 선생님은 한평생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다.

19. ㉠:㉡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언어: 세계
 ㉡. 명제: 사태
 ㉢. 논리적 그림: 의미 있는 명제
 ㉣. 형이상학적 주제: 경험적 세계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20. 윗글로 미루어 볼 때,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와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 그 사다리를 던져 버리듯이, 『논리 철학 논고』를 이해한 사람은 기기에 나오는 내용을 버려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① ㉠은 자신이 내세웠던 철학의 과제를 넘어서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은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에 대해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④ ㉠은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해 관념적으로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으로 모인다.

2011.11 [32~36] 과학 '그레고리력' ☆☆☆

1문단

①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②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③이로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④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①~④ #화제 제시

1582년, 10일이 사라지는 혼란이 '그레고리력'을 시행한 국가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춘분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그레고리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읽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 온 '그레고리력'은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일을 없애는 초강수를 둔 것도 '부활절'을 지키기 위한 교황청의 조치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제부터 우리의 궁금증은 하나로 정해졌습니다. 핵심은 '그레고리력'이 어떻게 '부활절'을 정확히 지켰느냐는 것이예요. 이를 화제로 잡아두고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아가 이 시대에는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다는 말도 여유가 있으면 챙겨줄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④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화제를 안내하는 문장입니다! '그레고리력'이라는 소재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안내하는 문장이지만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문단에서 설명해 줄 것이라고 능동적으로 생각하며 넘어가야 합니다.

2문단

①**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②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③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④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⑤**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① #화제의 흐름 #비교/대조

그 전, 그러니까 '1582년 이전'에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고요. 시간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1582년을 기준으로 '변화'한 부분을 자꾸 생각해주셔야 해요! '그레고리력'과 '비교/대조'해줘야겠죠?

②~③ #정의 제시 #화제의 흐름

율리우스력의 정의는 '평년을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을 366일로 정한 태양력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역법과 크게 다른 점을 못 느끼겠는데, 이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어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고 합니다. 무언가 문제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④ #수식된 정의 제시 #재진술 #문제점 제시

'춘분'이 조금 이르게 온 것은 '부활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보자마자 화제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 지문은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그레고리력'을 설명하는 지문이었어요. '부활절'이 '춘분'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춘분'이 빨리 도래하는 것은 '부활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1문단의 내용이 재진술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⑤ #해결책 제시 #화제의 흐름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된 것이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더니, 이를 한 번 더 언급해주네요. '역법 개혁'을 통해 '율리우스력'을 '그레고리력'으로 바꾼 것이니까요.

여기서 지문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렇죠. 해결을 해결하겠죠. 일단 '문제점'이 뭔가요?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한다. '원인'은요? 율리우스력의 4년이 실제보다 길었기 때문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당연히 '그레고리력'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그레고리력은 실제보다 긴 4년을 줄여서 부활절을 지키게 하는 해결책이다.'라는 생각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고리력'이라는 해결책을 적용하자 10일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4년이 실제보다 길었기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고, 이 오차를 없애려면 무려 10일을 없앨 수밖에 없던 겁니다. 1문단의 '화제의 틀'이 더욱 더 확실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지요?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생각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그레고리력'은 어떤 특성을 가졌기에 4년의 길이를 줄여 '부활절'을 지키게 해 주었을까요?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④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부활절'을 지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다시 한번 언급되었죠? 우리에게 화제를 재진술해주는 문장입니다. 최근 지문은 이만큼 친절하게 화제를 재진술해주지 않으므로, 1문단에서 제시해준 화제를 '스스로'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명심하세요!

3문단

①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율리우스**였다. ②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③그러나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

다. ④틸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①~② #주장 제시 #비교/대조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을 고려하여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는 '율리우스력'과의 공통점이기도 했네요. 비교/대조되는 대상이 나오면 언제나 '공통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죠?

③ #주장 제시 #재진술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문제의 '원인'인 '4년의 길이가 실제보다 길다.'를 해결하려고 1년의 길이를 조정하려나 봐요. 실제보다 길지 않게 만들어야 부활절을 제때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④ #정보의 역할 #수식된 정의 제시

이를 고민하던 '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즉 16세기 초반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지구의 공전 주기'가 '항성년'이라는 수식된 정의부터 제대로 체크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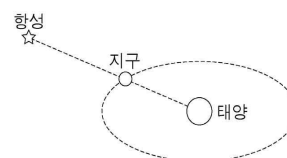
하지만 '항성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항성년'이라는 정보는 결국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를 설명해줄 것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정보의 역할'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③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여기서 '1년의 길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1년의 길이'의 오차를 줄여서 부활절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레고리력을 통해 율리우스력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화제를 까먹으면 안 돼요!

4문단



[A]

- ①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 ②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③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④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① #정의 제시

'항성년'은 지구의 공전 주기이자, '태양-지구-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림을 이용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를 '1년의 길이'로 삼는 것일까요?

②~③ #문제점 제시 #수식된 정의 제시

그런데 이 '항성년'은 1년의 길이로 삼기엔 별로라고 합니다. '항성년'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있었네요! '절기'를 신경써야 했던 거예요. '지구의 공전 주기'를 기준으로 하면 '절기'에 관련된 무언가가 어긋나나 봅니다.

역법 개혁의 목적이 부활절, 즉 '춘분'과 관련된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인데, 춘분 사이의 간격인 '회귀년'은 '항성년'보다 짧다는 문제가 있네요. '회귀년'의 정의인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이 수식된 정의로 나왔으니 의식적으로 인식해주고, 이제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사실이 '왜' 문제인지 납득해봅시다.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왜' 문제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정할 수 없을까요? 그렇죠! 항성년으로 1년을 정하면 '춘분'과 관련된 '부활절'이 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춘분'이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봅시다. '항성년'은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보다 길기 때문에 매년 '춘분' 사이에 오차가 생길 것이고, 그럼 '율리우스력'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율리우스력' 역시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니까요!

④ #재진술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네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 최대한 납득해야 합니다. 만약 '항성년'과 '회귀년'이 같다면, '춘분'날의 '지구/태양/어떤 항성'의 상대적인 위치가 '다음 춘분' 때도 똑같아야 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여 '항성'과 다시 일직선이 되는 시간인 '항성년'이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과 같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춘분' 때의 지구 위치는 매년 달라진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지구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항성년'과 '회귀년' 사이에 계속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조금 어렵지만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이 됩니다.

어렵지만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1년의 길이'를 '항성년'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예요. 같은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②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항성년'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미리 추론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춘분을 정확히 지켜야 부활절이 지켜지는데, '절기=춘분'에 부합하지 않는 항성년은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절기=춘분'으로 재진술 할 수 있다면 다음 문장을 읽지 않아도 충분히 이 문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예요! 화제에 중요한 부활절, 춘분, 절기 등의 키워드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읽어주도록 합니다.

생각 심화

'항성년'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문의 내용에 의하면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고 합니다

다. 여기서 '회귀년'은 우리가 원하는 춘분과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이구요. 춘분을 정확히 지켜야 부활절을 지킬 수 있다는 우리의 목표에 맞는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긴 시간 간격인 '항성년'을 쓰면 '율리우스력'과 완벽하게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율리우스력도 실제 춘분을 지키기 위한 시간 간격보다 '길었기에' 춘분이 앞당겨졌죠? 마찬가지로 항성년도 회귀년보다 '길기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더욱 깊은 독해를 해보면, 춘분과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회귀년을 '1년의 길이'로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할 수 있겠죠? 핵심은 결국 '춘분'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5문단

①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②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③<릴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④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⑤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⑥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① #해결책 제시 #수식된 정의 제시

릴리우스는 '회귀년'과 '항성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깊게 파고드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화제와 관련 있는 정보도 아니니까 우리도 관심 가질 필요가 없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 '1년의 길이'를 잘 정하는 거니까요!)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두었다는 '알폰소 표'라는 것을 이용하여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했다고 해요. 여기서 '채택'했다는 것은 '1년의 길이'로 정했다는 것이겠죠?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한 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좋겠네요. 여기서 '회귀년'을 사용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앞 문단을 독해하면서 미리 예측했던 부분이니까요.

② #화제의 흐름

'그레고리력'을 사용하면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오차가 덜 발생하는 것이니까 훨씬 낫겠네요. 핵심은 이런 방식으로 4년의 길이를 '짧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문을 관통하는 문제의 원인이 제거되는 순간이예요! '그레고리력'의 진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③ #비교/대조 #재진술

본격적으로 '그레고리력'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율리우스력'과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4년의 길이를 줄였을까요? 먼저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는 것은 '율리우스력'과의 공통점입니다. 앞에서도 확인했던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했다고 해요! 100의 배수도 모두 4의 배수인데 '예외적'으로 평년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원래 윤년이던 해가 평년으로 바뀌며 1일씩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모이면 '4년의 길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율리우스력'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4년의 길이를 줄인다.'라는 화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모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⑤~⑥ #화제의 흐름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었네요. 과학적 논쟁도 없고,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가진 역법이 완성되었으니까요. '절기'에 잘 맞으니 '부활절'을 지키는 데도 문제가 없었겠죠? 오늘날까지도 쓰이는 것을 보니 정말 잘 만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의의'로 지문이 마무리되었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①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릴리우스가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는 말은, 결국 '회귀년'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레고리력이 어떻게 부활절을 지켰는가.'라는 화제에 해당하는 해결책이 나온 것이죠. 앞 문단의 '생각 심화'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회귀년'이 춘분과 춘분의 시간 간격을 정확히 지키게 해주었기에 선택되었다는 사실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8%	76%	7%	5%

3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③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명시적 근거	1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한 번에 수정했지.
해설	몇 년에 걸친 게 아니라 한 번에 수정했죠. 부정확한 '율리우스력' 때문에 10일이라는 큰 오차가 생겼는데, 이걸 한 번에 없애 버린 것이 '그레고리력'이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생겼다는 서술도 있고요.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과학계의 반대가 있었나?
해설	과학계의 반대는 나온 적이 없어요. 애초에 릴리우스도 과학자일 것이구요. '과학계'보다 '교회의 전통적 규정'이 더 중요했어요.

③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화제 그 자체네.
해설	'부활절'을 지켜달라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레고리력'이라는 역법 개혁을 한 것이죠? 결국 정답 선지는 화제와 직결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④ 릴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명시적 근거	5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항성년과 회귀년 차이가 왜 생기는지 별로 안 궁금해했지.
해설	릴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에 해당하는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의 원인'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했던 것이 '그레고리력'을 통해 '율리우스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이라는 말이 한 번에 와닿지는 않았어도, 애초에 이것이 지문의 화제와 무관하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지워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명시적 근거	1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던 것 같은데...? 1문단 다시 확인해보자.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네.
해설	1문단에서 '여유가 되면' 챙겨 갈 정보로 소개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고 다른 선지에서 답을 찾은 상황이라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천동설'이라는 정보를 지문 독해 과정에서 챙겨가는 것이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4%	11%	36%	15%	24%

33. 윗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㉓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30일과 29일이 든 달을 번갈아 써서, 평년은 한 해가 열두 달로 354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 주기와 많이 다르므로, 윤달을 추가하여 열세 달이 한 해가 되는 윤년을 대략 19년에 일곱 번씩 두게 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법을 만들고 대략 15일 간격의 24절기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 놓음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역법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한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마치 한 지문 같은 <보기>입니다. 이런 경우엔 그냥 차분하게 독해를 해야 합니다. '음력'에 대한 설명인데, 지문의 역법들과 달리 평년이 열두 달에 354일이라고 해요. 무려 11일의 오차가 있는데, 이를 열세 달이 한 해가 되게 하는 해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음력'이라는 방식으로 역법을 만들고, 24절기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 놓는 것이 동양의 '태음태양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음력'의 경우 '보름달'의 움직임을 고려하는 것인데,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고려한 것이기에 '태양력'이라는 이름도 같이 붙는다는 걸 생각하는 것이예요. 나아가 지문 속 두 역법 모두 '태양의 움직임'을 고려하는 '태양력'이라는 것도 생각해주시면 완벽하겠죠? 이 정도 정리 해두고 가볍게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보름달'을 고려했네.
해설	'부활절'을 묻고 있네요. 부활절의 정의가 뭔가요?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보름달'이라는 달의 모양을 고려했네요. 음력은 정의 자체가 보름달 주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구요. 맞는 말이에요.

② 동서양 모두 역법을 만들기 위해 천체의 운동을 고려했군.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너무 당연한데?
해설	동서양 모두 '지구'와 '태양' 혹은 '보름달'과 같은 천체의 운동을 고려했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③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군.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했다며.
해설	'서양의 태양력'에 해당하는 지문의 두 역법은 모두 일반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의 공통점을 묻는 선지네요. 우리가 확실하게 체크했던 정보죠?

④ 그레고리력의 1년은 태음태양력의 열두 달과 일치하지 않는군.

명시적 근거	5문단 2번 문장,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10일 정도 차이나네.
해설	그레고리력의 1년은 365~6일이고, 태음태양력의 열두 달은 354일이라고 했습니다. 일치하지 않네요. 미리 생각한 내용이기도 했죠?